

삼성 4000억 온누리 효과 기대... 전통시장·골목상권 '숨통'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휴대폰·가전 등 구입시 20% 환급 내달 5일까지 제품 구매고객 대상 개인정보 입력하면 조폐공사 충전 구매내역서·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年매출 30억 초과 점포 사용 제한 병원·한의원 등 가맹점서는 제외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 구매 모든 고객에게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울상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종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조5000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권은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보다 약 7000억원 늘었다.

〈디지털온누리 vs 지류 온누리상품권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류 온누리상품권
구매 방법	앱에서 본인인증 후 충전	금융기관 방문 구매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온라인 전통시장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결제 방식	카드결제, QR결제	지류 상품권으로 실물 결제
환불/교환	◆ 충전일로부터 7일 내 취소가능 ◆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충전금액의 60%이상 사용시 환불 가능	구매 당일에 한해 판매처에서 환불
추천 대상	앱 사용이 편한 사용자	앱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
장점 비교	◆ 온라인·배달앱 등 다양한 사용처 제공 ◆ 지류 상품권보다 높은 할인율 제공 ◆ 분실 위험 없이 충전과 사용 가능	노령층의 사용이 편리

삼성전자가 성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제품 구입 가격의 20%, 총 4000억원 가량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하면서 상품권 소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감사 페스티벌' 기간이 오는 7월 5일까지로, 이어서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선물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이는 곧 소비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진공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현재는 7%, 명절의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혜택이 있지만 기업이 구매할 때는 할인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기간 삼성전자 제품을 산 고객의 데이터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회사인 한국조폐공사로 넘어가면 조폐공사가 고객 휴대폰의 디지털 온누리 앱

에 해당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페스티벌 기간(7월5일까지) 안에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선 삼성닷컴 홈페이지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를 등록한 후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 등 품목과 함께 구매처를 입력하는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일자와 주문번호, 구매금액이 담긴 정보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다면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동통신사별로 요금에 따라 구매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만큼을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6 256G 모델의 환급액은 23만5000원, 갤럭시 S26 울트라 256G 모델은 33만7000원 등이다.

디지털을 포함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관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나 병원, 한의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다.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추가됐다. 이들 업종은 연매출 30억원 기준과 관계 없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한업종은 총 33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벨기에와 中企·스타트업 유럽 진출길 확대

중기부, 브뤼셀서 협력 MOU
중소기업 분야 첫 정부 간 협력
정책대화로 스타트업 지원 강화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 125주년을 맞아 양국 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1901년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 후 중소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가(연방 정부)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벨기에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관문으로 창업 인프라와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는 중소기업 중심의 닥테크 스타트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벨기에 MOU 체결식'에서 엘레오노르 시모네(Eleonore SIMONET) 벨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럽 진출 전초기지이자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정책대화를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교류 및 기술협력, 비즈니스 매칭 사업 추진 등이 반영됐다.

노용석 제1차관과 벨기에 엘레오노르 시모네 중소기업·자영업자부 장관은 양해

각서 체결 후 정책 교류방안 논의 등을 위한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노용석 차관은 벨기에의 비즈니스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연계한 스타트업 협력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6'에 벨기에 정부 관계자와 스타트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지난 달 개소한 글로벌 창업 협업공간인 SVC 서울을 소개하고, 정책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노 차관은 "벨기에에는 '유럽연합의 심장'으로 불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프라와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벨기에 연방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에 실질적이고 역동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 차관은 같은 날 오전 '벨기에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EU(유럽연합) 통상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승호 기자

하이엠솔루텍, 원격 유지보수 1만곳 돌파

5월 기준 TMS 연결 1만773곳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LG전자 냉난방공조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의 실시간 원격 유지보수 솔루션(TMS) 연결 현장이 전국 1만개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냉방 설비 안정 운영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후 수리보다 고장을 미리 예방하는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TMS 연결 현장 수가 1만773개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18% 늘어난 수준이다.

냉방 설비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사업 손실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 수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유지보수를 통해 설비를 안정

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고 하이엠솔루텍은 설명했다.

TMS는 LG전자의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LG 비콘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냉난방 설비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원격 유지보수 서비스다.

하이엠솔루텍은 T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진단·제어 ▲AI 고장 예측 ▲에너지 절감 솔루션 등을 PC와 모바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TMS가 연결된 현장의 설비 운전 상태를 365일 24시간 관제하는 서비스다. 설비에 예러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이엠솔루텍 상황관제실과 고객에게 동시에 알림이 전달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리바트 용인 스마트워크센터

K-가구공장 위상 입증

현대리바트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지속 가능한 'K-가구공장'으로 인정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리바트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하는 '2026 세계목재과학기술대회'의 공식 현장 견학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69회째를 맞는 세계목재과학기술대회는 목재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목재과학기술학회(SWST)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오는 1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한국 개최는 1958년 학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김승호 기자

홈씨씨, 펫테리어 바닥재 '숲 도담' 리뉴얼

KCC클라스, 스크래치·충격 흡수 강화

KCC클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위한 프리미엄 PVC 바닥재 '숲 도담'을 리뉴얼 출시했다.

11일 KCC클라스에 따르면 숲 도담은 어린이가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 '도담도담'에서 따온 제품명으로 KCC클라스만의 '듀얼(Dual) 공법'을 적용해 기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캘렌다(Calender) 공법'의 고강도 표면 투명층은 스크래치를 효과적으

로 방지하고 '솔(SOL) 공법'의 고탄력 쿠션층은 점프나 보행 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생활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숲 도담은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에겐협회 및 KOTITIT 시험연구원의 반려동물 제품 인증(PS인증)을 획득한 펫테리어(Pet+Interior) 바닥재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논슬립 시험에서는 반려견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미끄럼 저항성이 건식과 습식 환경 모두에서 일반 감마루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초격차 스타트업 앞세워 산업 현장 AX 지원

창진원, 수요 대기업 등 27곳 최종 선정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 37곳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27개사를 연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나섰다. 창진원은 링크업(Link-up)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 창업기업-수요기업 및업데이'를 지난 10일 서울 흥대 SVC 서울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격차 창업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력과 국내의 우수 수요기업의 산업 현장 기반시설을 결합해 AX를 실현하는 협업의 장으로 마련됐다.

수요기업에게는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적용을 돕고, 창업기업에게는 실증 경험 확보 및 판로 구축의 기회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종 연계된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등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수요기업은 총 47개사가 신청해 1.6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기업 10개사,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1개사, 병원 3개, 공공기관 6개 등 총 27개사의 수요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초격차 창업기업 역시 평가를 거쳐 AI 기술력을 보유한 37개사를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차량 실내 살균 신기술 개발

200~230nm 원자외선 살균 활용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 실내 공간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세균에만 작용하는 UVC(자외선) 파장대를 플라즈마 램프 방식으로 구현한 '플라즈마 케어 UVC'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술은 발광다이오드(LED)로 만들기 어려운 200~230nm 대역의 원자외선 빛을 살균에 활용한다.

원자외선 빛은 살균 효과를 내면서도 투과성이 낮아 피부 표면의 각질층까지만 도달해 체내에 깊숙이 침투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기술 검증을 거쳐 실제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한주 현대차·기아 MSV 내장설계2팀 책임연구원은 "플라즈마 케어 UVC는 기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만 살균하는 방식을 넘어 탑승자가 있는 실내 개방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